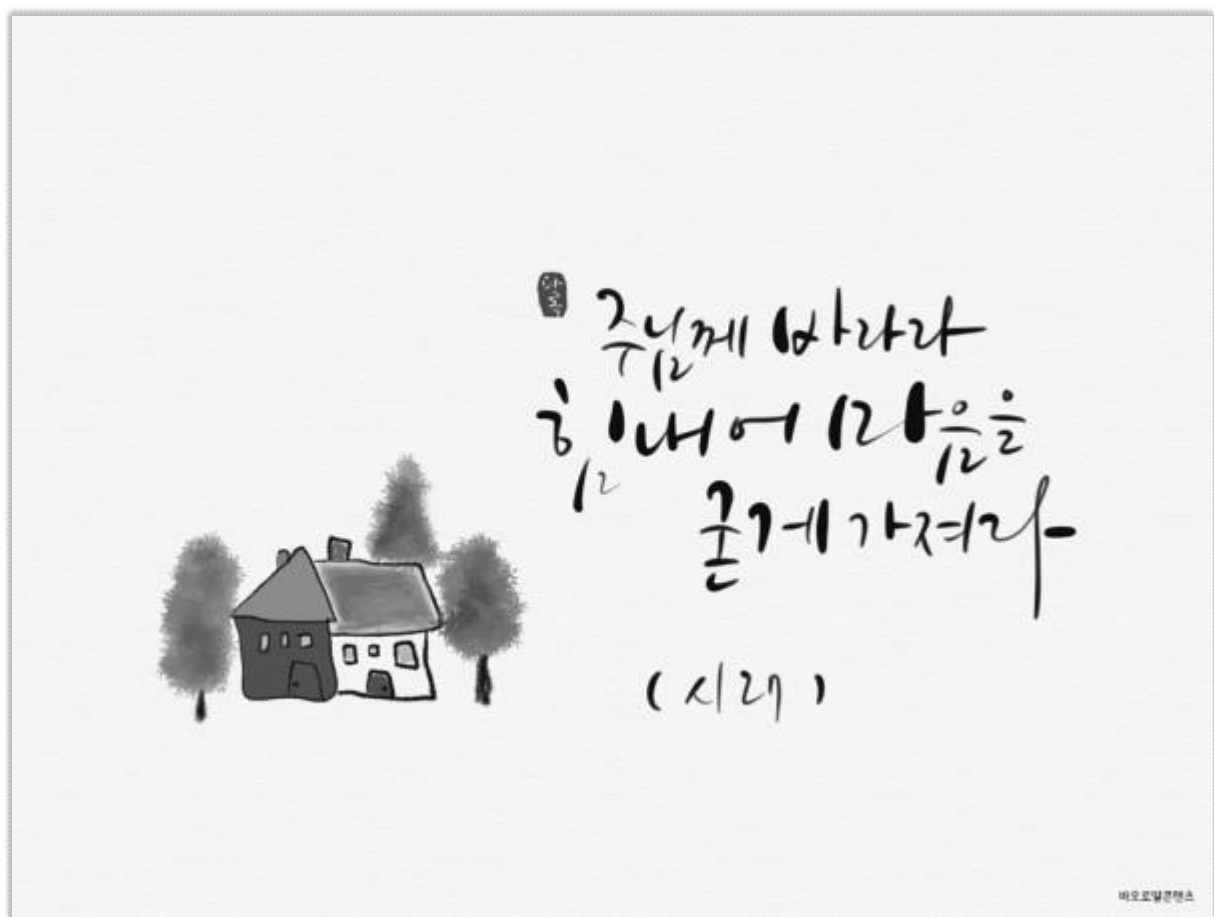


만남

2022년 4월
통권 207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신부님 칼럼	삶의 교과서인 십자가-----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4
전례의 숲	-----	7
영적 상담	-----	10
보물 창고	-----	12
성경 속의 사람들	-----	15
축일을 축하합니다	-----	17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8
영혼의 샘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월 중 행사표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4월 기도지향》

❖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삶의 교과서인 십자가

십자가는 패배요, 절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차마 피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 넘쳤고 의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기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하고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악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셨기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십자가를 삶의 교과서로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책”(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가 취할 길을 발견하고 가야 할 길에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의 두 번째 신부님인 최양업 신부님은 “나의 빈약하고 연약함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만 주님께 바라는 굳센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저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힘을 주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오 하느님, 죽어서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떤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죽음도 서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 하고 공동체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분처럼 사랑을 증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을 때 부활의 영광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마태 26,14-25)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희 식탁에 앉으셨나이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6 14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15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



16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1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20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21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26 2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 22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 24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 25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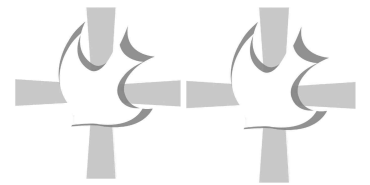
☞ 누군가의 믿음을 저버린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식사자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살림을 맡아 살았으니 셈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은총이며 좋은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나에게 주어진 은총, 달란트는 자부심이며 살아가는데 희망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유혹이며 교만으로 좋지 않은 결론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셈이 빨랐던 유다에게 모든 세상의 논리는 돈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몸값으로 정리해 버리는 유다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다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유다가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면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족함이 드러나도, 때때로 당신을 외면해도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주님께서는 환한 미소로 다시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선물을 교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청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기도, 힘드신가요?(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만나는 신자분마다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며,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의미 있는 선물이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어렵다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자 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부담이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기도

기도의 초보자인 우리에게는 기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봅시다. 훌륭한 기도 스승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 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기간의 바쁘신 와중에도 틈만 나면 외딴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큰 일이 있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12사도를 뽑기 전 날도 밤새워 기도하셨고, 쓴잔을 마셔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서는 홀로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 자주 홀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나를 잇는 일대일 기도를 자주 바치셨습니다. 침묵 속에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느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침묵기도와 묵상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 달라는 지향으로 기도하셨고, 당신의 양떼들, 세상과 인류 전체를 위한 이타적인 기도, 즉 큰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열렬했습니다. 빈말이 되풀이되는 기도를 싫어하셨고, 겸손하셨으며, 우리를 향해서도 자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기도 스승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참기도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는 “기도는 영혼의 용솟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를 드 푸코 신부는 “기도는 내가 사랑 어린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사랑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상호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교부 에바그리우스는 “기도는 온순함의 꽃이며, 분노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슬픔과 낙심을 치유하는 치료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하나를 놓고 그 사이를 왕래하는 일”이라고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과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성에서 완전한 하느님 나라로 넘어가는 일, 그리고 건너가 힘을 얻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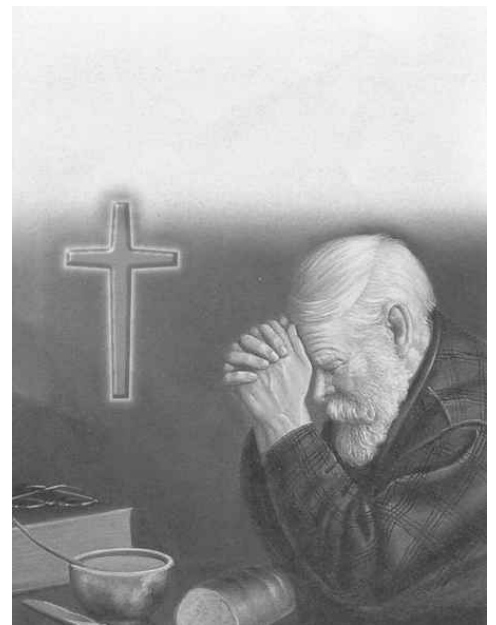
또한 기도는 인간과 하느님과의 만남이요, 대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 하느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된 나, 포장된 나가 아닌 있는 그대로인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티끌 같은 나,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진실하신 하느님, 모든 거짓된 포장과 허위를 떨쳐 버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결실인 하느님 향한 회심과 이웃 사랑

좋은 기도를 위한 준비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느님 상’이 그릇된 것이라면, 빨리 ‘참 하느님 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릇된 하느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느님을 자동판매기로 생각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바람을 청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자동판매기로 여기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힘겨움을 모른 채하고 나만 챙겨주는 하느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십자가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감시하고 벌을 주는 작은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자비의 인내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앞서 하느님을 더 잘 알려는 노력과 미워하는 이를 용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목숨조차 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예로 들어봅시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곁에만 있어도 좋고 바라만 봐도 좋으며, 말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참 기도는 이처럼 시간만 나면 그분을 바라보고 싶고 곁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앞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옷을 벗는 행위입니다. 사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기도 전에 앞서 내 마음에 상처 준 이들, 용서가 안 되는 이들의 이름을 보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영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존의 일이며, 동시에 하느님께 이르는 내적이고 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생활은 그대로 은총생활로 이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은총은 기도 생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생활과 향주삼덕을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은총은 믿음, 소망, 사랑의 향주삼덕을 낳고, 이 향주삼덕은 영적인 작용으로 기도하는 마음과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하며, 침묵 속에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빛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결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체험입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신비도 체험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 신비 체험을 넘어 인간성 전체의

깊은 변화와 하느님을 향한 회심을 낳습니다. 결국 기도의 결실은 회개요 사랑이고 그 절정은 이웃사랑, 즉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과 기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개의 날개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처럼 두 개의 날개로 지탱되고 유지되며 또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자 하는 본인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 안에서 풍요롭게 행복한 날들을 엮어 가면 좋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자칫 심리적 부작용을 낳는다면서요. 두 번째 질문은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아이들에게 병적인 콤플렉스를 심어줄 수 있다면서요. 이 말을 들으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그런 말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나름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니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체로 심리적인 병을 앓는 사람에게 기도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환자에게 ‘당신 영혼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퇴마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심약한 이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면서 구마를 한다고 주장하는 무지막지한 경우도 있기에 그런 기도에 경계심을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도 그런 기도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자신을 자기도 싫어하는 심리적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용히 기도해주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치유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황량한 사막에서 헤매는 우울증 환자에게 수호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심한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사람은 대화 능력 말고도 영적 교감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것을 마음 어딘가에서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수도원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기도하며 사는 수도자들의 마음과 기도의 힘이 아픈 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케케묵은 말씀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는 시대에 상관없이 새겨들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을 치유하는 이들은 절대적으로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생활을 시키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다.’입니다. 특히 귀하게 키워서 자기밖에 모르며 병적으로 자기애가 강한 아이들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습관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들은 학벌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류대학을 나오고 해외유학도 다녀온 소위 사회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은커녕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기도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생활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도 자체는 좋은데, 기도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버거워하는 신앙 방법론을 아이에게 가르칠 경우 심리적 과부하가 걸려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기도문과 어른들의 기도문은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하는 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일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기도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루카 복음 2장 51-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무엇보다 부모님들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데 하느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삶 안에서, 중요한 어떤 일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도 모두 기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거룩해지는 길(허귀희 클라라 수녀님)

인간에게는 일차적 욕구인 생존의 욕구 외에 감성적 욕구인 사랑, 안정, 인정, 지성과 무엇보다 영적 충만함을 갈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즉 거룩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이는 교계에 소속된 사람이든 교계의 사목을 받는 사람이든 다 거룩함으로 부름 받고 있다.”(제5장 39항)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룩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거룩함(sanctification)’이란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히브리어 ‘카도쉬’나 신약의 그리스어 ‘하기오스’는 모두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와 연결된 거룩한 시간, 사람, 장소, 사물 등이 모두 ‘하느님’과 연관됩니다. 탈출 19,6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내 백성’으로 불립니다. 백성 전체가 거룩하다는 속성을 부여받습니다(신명 7,6; 14,2.21; 26,19; 28,9 참조).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sanctified)’ 사람들을 “성도”(1코린 1,2)라고 부르며, 하느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1테살 4,3)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은 하느님과 함께 그분의 본질인 거룩함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성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칼 라너가 아주 명쾌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너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은총으로 인간에게 당신을 내주셨기에 인간은 원칙적으로 성화되어 있다고 보며, 이 성화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구체적 일상의 삶에 현존하실 뿐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을 통해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벗어난 은둔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기도 중에 일어나는 어떤 황홀한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출발점으로 하고, 실제로 역사에 현존하셨고 구체적 현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육체와 마음, 지성이 통합된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게 성화의 삶이란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현실을 직시하며 하느님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매일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거룩함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헌 생활의 길은 ‘관계’와 연결됩니다

보편적 성화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삶의 길은 각 개인이 맺는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내가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배우고 타인에 대해 잘 파악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먼저인데도 그렇게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성화되는 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수용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요인을 타인이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과 불행을 내 안에서 체험하도록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현대인은 한순간에 동시다발적 행위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면서 이어셋을 끼고 전화를 받고, 한 손으로는 컴퓨터로 검색하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틸틈이 훑쳐보며,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능력이 이렇듯 위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순간도 제대로 깊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번잡함 속에서 자신의 전일성(wholeness)을 위해 작고 고요한 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신학에서 말하는 ‘지금 바로 여기(here and now)’에 머물기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감정, 생각,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느님과 함께 현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내가 아닌 타인이 그런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자신이 어떤 배경을 지니고 살아왔는지, 그 배경이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19,19)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각자 맞이하는 ‘현재’는 과거의 투영임이 인지된 사실이고, 그 과거는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보내고 현재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긴장, 두려움, 슬픔, 분노의 감정, 생각, 열망, 행동의 패턴 등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지켜보고 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3,25에는 “눈이 멀고서야 어찌 빛을 보랴?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설득하려 들지 말아라.”(공동 번역)라고 쓰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자신을 아는 만큼 이웃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각 개인이 자신을 더욱 잘 아는 것은 세상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고귀하게 사랑할 때 자신이 속한 가정, 사회, 세상을 살리기 위해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이 힘 있는 나라들이나 몇몇 정치 지도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각 개인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힘’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미줄처럼 엮인 ‘인간관계의 그물망(web)’에서 나오는 힘의 연계성으로 지구가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무질서는 인간 각자가 창조해 내는 무질서(chaos)의 결과이며, 세상의 조화는 인간 각자가 창조해 내는 조화(cosmos) 덕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삶에 의미를 주는 진리는 사랑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 비로소 빛을 주며, 사랑하는 이가 체험하는 진리는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회칙 〈신앙의 빛〉 27항 참조).

셋째,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는 명제를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에 따라 하느님을 좋은 분, 나쁜 분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배워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기도로써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깊이 아는 것은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구름>에서 말하듯 ‘하느님은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은 의인 욥은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보았습니다.”(공동 번역, 욥 42,5)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그 전에 하느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을 깊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체험되고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바로 삶과 연결되고 진정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사랑은 불타오르는 감정의 변화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그 대상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숨을 쉴 때 드나드는 그분의 숨결(창세 2,7 참조)을 느끼고, 자기 삶 전반에 현존하시는 그분을 느낄 때 하느님의 거룩함은 자신의 전 존재에 젖어들게 됩니다.

♥ 성경 속의 사람들 - 카인과 아벨(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이야기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창세 4,1-16), 곧 형제살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형제를 죽이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주제는 고대 영웅들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의 하나입니다. 고대 로마를 건설했다는 로물루스도 자신의 형제인 레무스를 죽이고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권력을 위한 싸움 또는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의 문제일까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이야기의 중심인물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이끄는 인물은 카인과 하느님입니다. 아벨(헛됨, 미풍, 가느다란 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조연일 뿐입니다. 카인(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아들)이야말로 하느님과 대화하고 부딪히고 행동하는 중심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카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카인은 땅의 소출을,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들과 굳기름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벨은 좋은 것을 바치고 카인은 나쁜 것을 바쳤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바친 제물의 질(質)에 대해 어떤 비교나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들이시고(‘굽어보시고’) 카인 쪽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물을 받아들이고 마는 것은 하느님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카인의 잘못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카인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자신의 의지와 뜻과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主)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하느님,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느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카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창세 4,7) ‘옳게 행동하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자가 되라는 충고입니다. 이는 또한 카인을 지키고자 하는 하느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인은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아벨을 들로 나가자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4,8) 간단하게 묘사되었지만,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오직 둘만 있는 곳, 그래서 형제로서 서로 더 의지해야 할 그 들판 한 가운데서 살인의 폭력이 행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개입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4,9ㄱ) 이 질문은 에덴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숨은 아담을 찾을 때 하신 말씀, “너 어디 있느냐?”(3,9)의 다른 표현입니다. 죄를 지은 이를 찾는 말이며,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이며, 또한 회개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뉘우치지 않던 아담처럼 그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4,9ㄴ) 거짓과 무책임의 말입니다. 이제 에덴의 남자와 여자와 같은 길을 카인도 걷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출발점인 땅과의 관계가 끊어졌듯이, ‘땅을 부치던 농부’(4,3) 카인도 ‘땅에서 쫓겨나’(4,11)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4,12,14)가 됩니다. 더 나아가 카인은 이제 하느님 앞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물러나’(4,16)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끝까지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형제를 죽이고 책임마저 회피하는 그를 찾아와 대화하시며, 그의 죄를 깨우쳐주십니다. 그때에 카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을 하느님께 호소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4,14). 하느님은 비록 카인을 땅에서 쫓아내는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표’(4,15)까지 찍어주십니다. 하느님의 카인을 향한 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표’를 받은 카인에게도 자녀의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뒤따르는 ‘카인의 자손’(4,17-22)은 하느님께서 카인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심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살인, 상해, 사형제도만이 아니라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과 행동은 생명의 원천에서 스스로 자신을 떼어놓는 행위입니다. ‘저런 놈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말조차도 하느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4,7) 카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옳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앞에 똑바로 서는 길입니다.

❖ 4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아	김성은	11일	젬마	이수빈
13일	마르티노	김성일	15일	아나스타시아	박지훈
15일	벨라데타	최성자, 오옥수	24일	보나	이보나
25일	마르코	강석진	29일	카타리나	이화자, 정혜경
29일	카롤리나	김계희	30일	소피아	김주현, 이명희

❖ 4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안나	송윤아(H)	21일	안셀모	이철민(H)
11일	젬마	이혜경(H)	29일	카타리나	박진경(H), 고희경(B)
12일	비시아	강윤진(H)	30일	소피아	박영희(H)

❖ 4월 성가번호 ❖

4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3일	124	212	499	127
10일	10	221	163	125
17일	129	132	134	136
24일	130	512	164	135

♡ 3월 13일 주일미사 봉헌금을 우크라이나 도움을 위해 봉헌하기로 결정했고, 봉헌금 전액을 Caritas ‘우크라이나 도움’ 계좌로 보냈습니다. 브레멘 지방공동체가 300유로를 기부하였고, 오스나브뤼크 지방공동체가 103유로를 기부하였습니다.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봉헌금은 1496유로였습니다. 저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여러분들의 큰 협조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4월 전례 봉사 ❖

4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3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1구역
10일	이정훈(요나스) 전우연(아네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2구역
17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24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3구역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3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3월 21일 기준)

강신행, 윤석순, 권말숙 Rabe, 강순행, 최장용, 영희 Eggerstedt, 김민옥, 김경미,

❀ 계좌 입금(3월 18일 기준)

정정숙, 허두옥, 이명원, 김치수, 현영애, 이공종, 송문규, 허길조, 최현봉,
김유석, 육종인, 허선애, 이영원, 이성원, 김진호, 이석우, 옥수 Ranitzsch,
이경규, 김동수, 백정선, 김원자, 배성우,
Caroline Tunas,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월 21일 자 통장 잔액은 26.568,16유로입니다.



♣ 하느님의 음성(신성남 바르나바 신부님)

늦가을이 되면 한강 하류지역에 철새들이 날아옵니다. 자유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수천 마리의 철새 떼가 운집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봄이면 시베리아 벌판으로 날아갔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옵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정확한 시기에 떠났다가 정확한 장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동해안 남대천에는 해마다 연어 떼가 올라옵니다. 그때를 맞추어 연어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남대천에 돌아오는 연어는 어린 새끼였을 때 남대천을 떠난 연어입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베링 해협을 지나 알래스카 연안까지 갔다가 산란시기가 되면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떠난 곳을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다시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연어는 참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돌고래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새끼가 느끼는 고통을 어미가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신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 속에 넣어주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철새나 연어에게는 떠난 곳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귀본능을 주셨고, 돌고래에게는 먼 곳에서도 통할 수 있는 통신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면서 신기해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더 신기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 효능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음성이란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감동과 깨우침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 성경, 꿈, 예기치 않은 사건, 주변사람들의 조언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기도와 성경 말씀이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데 신경을 모으십시오. 하느님께서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4월 10일 일요일부터 4월 17일 일요일까지는 교회의 전례력 중 가장 중요한 성주간입니다. 4월 10일 일요일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축성된 성지가지리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이어지는 긴 수난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묵상합니다. 4월 14일 목요일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19시 주교좌성당 미사에 함께 참여했지만 올해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남성당에서 몇몇 분들과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은 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미사는 없고 15시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을 성 금요일 전례에 독일공동체와 함께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16일 토요일은 부활성야입니다. 20시 만남성당 강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4월 17일 일요일은 15시 예수 성심 성당에서 주님 부활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니 이후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4월부터는 조심스럽게 미사 후 커피 나눔을 시작합니다. 각 구역과 요셉 마리아회, 그리고 청년회는 커피봉사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4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하노버 공동체는 넷째 주 토요일에 봉헌합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부회장	
				부회장	
				전례부장	
				총무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월요일 10시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L.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가나(마르가리타)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신지혜(체칠리아)	
			부회장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4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2	토			브레멘 공동체
3	일	사순 제5주일		
4	월			
5	화			
6	수			
7	목			
8	금			
9	토			오스나브뤼크
10	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1	월	성주간 월요일		
12	화	성주간 화요일		
13	수	성주간 수요일		
14	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15	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16	토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20:00 만남 성당 강당	
17	일	주님 부활 대축일	15:00 예수 성심 성당	
18	월			
19	화			
20	수			
21	목			
22	금			
23	토			하노버 공동체
24	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25	월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26	화			
27	수			
28	목			
29	금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30	토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